

## 제1회 일본군“위안부”박물관회의 선언문

오늘 한국, 필리핀, 중국, 대만, 미국의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회의가 가해국인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한국의 생존자 김학순이 ‘위안부’ 피해자로 공개 증언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오랫동안 이어져 온 침묵의 역사가 깨졌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과 역사 연구의 발전에 의해 과거 일본군이 침략하여 통치했던 아시아-태평양 거의 모든 지역에 성노예 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여 온 피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폭력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따뜻하고 강인한 생존 피해 여성들에게서 인간의 존엄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이 중대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활동을 이어왔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각하려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안부’ 피해의 실태와 그 역사를 전하는 박물관의 역할은 다음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 교육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은 운영주체나 규모는 다르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기억을 계승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회의는, 전쟁이 없고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17년 4월 1일

제1회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회의 참가자 일동